

보도자료

2010년 4월 25일(일)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제협력관 국제기구담당관 전영만 과장(☎750-1730)
국제기구담당관 이은희 사무관(☎750-1738) ehlee@kcc.go.kr**방통위, 월드뱅크와 ICT 협력을 위한 MOU 체결**

방송통신위원회 이기주 기획조정실장은 월드뱅크(World Bank) 후안 호세 다뭉(Juan Jose Daboub) 사무총장(Managing Director)과 ICT 분야 공동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국의 발전된 ICT경험과 지식을 월드뱅크와 협력하여 개도국에 적극적으로 전파 하는데 합의하였다.

이 실장은 4월 23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월드뱅크 한국정부 대표인 김도형 이사(Alternate Executive Director) 및 월드뱅크 내 ICT 담당부서 책임자인 필립 동저(Philippe Dongier)가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고, 향후 한국과 월드뱅크가 협의하여 선정할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공동 사업개발, 한국의 ICT에 관한 지식과 경험의 공유,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 ICT분야에 관해 전략적인 파트너 관계를 맺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은 월드뱅크의 요청에 따라 전세계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먼저 협약을 맺게 된 경우로, 이는 한국이 ICT분야에서 월드뱅크가 인정하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국가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향후 우리의 IT기술, 제품, 전략 등이 월드뱅크를 통하여 개도국에 적극 소개된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개도국 시장 진출에도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특정국가나, 특정기업들과는 형평성 문제상 공개적인 협력을 꺼려왔던 월드뱅크가 그동안 고수해온 내부인력 위주의 폐쇄적 사업개발 및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개방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한국과 가장 먼저 협약을 맺은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금일 월드뱅크에서 '아프리카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CT)'이라는 주제로 열린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 Microsoft, Intel, Salesforce, Pfizer 등은 월드뱅크와 각각 MOU를 맺고, 각 기업들이 전문성을 보유한 분야에서 월드뱅크의 개도국 지원사업을 적극 돕기로 하였다.

ICT분야 선진국을 대표하여 인도 정보통신청장과 함께 동 회의에 패널로 참석한 이기주 실장은 한국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중점 소개하고, 월드뱅크와 함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이번 회의에 참석한 나이지리아, 가나, 우간다, 르완다,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지역 정보통신부 장관들은 ICT를 이용한 국가의 변화를 월드뱅크 및 한국 등이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끝.